회 원 사 동 정

포스코

* 중국 포샨에 연산 10만톤 *

포스코차이나는 중국 광둥성 포샨시에 스테인리스 냉연제품, 전기강판제품 등 연간 10만톤의 가공능력을 갖춘 종합강재가공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1월 착공해 3만 3000평 부지에 총 1200만 달러의 투자비가 소요된 포항불산강재가공유한공사는 절단라인, 전단라인 등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강재가공 설비를 갖췄으며, 제품의 보관과 운송업무도 병행해 고객사의 물류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준공으로 포스코차이나는 중국 광둥지역의 고객사들에 선진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레이저 측정시스템 국산화 성공 *

포항제철소 전기제어설비부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레이저를 이용한 비접촉식 폭, 길이 측정시스템"을 2후판공장 가열로 설비에 적용했다.

다른 공정과 마찬가지로 포항제철소 2후판공장 라인에는 소재의 폭, 길이, 두께 등 크기와 형태를 측정하는 많은 수입 계측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전기제어설비부는 이에 시스템 구성이 간단하고, 고온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며 외국산과 견주어도 동일한 수준의 측정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삼각법이라는 새로운 측정원리와 비주얼 C라는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측정 정도와 정비 편의성을 높였다.

필요한 하드웨어는 국산품을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설계에 필요한 인력은 인재개발원과 협의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조달하는 등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전기제어설비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비해 약 40%의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후공정의 폭, 길이 재측정 업무가 생략돼 생산 사이클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하드웨어 단순교체 등과 같은 저부가가치 업무는 줄이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업무개선 등 고부가가치 업무를 늘릴 수 있어 향후 정비업무의 혁신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 쿠바서 발전설비 1.3억불 수주 *

현대중공업이 쿠바에서 1억3천만 달러 규모의 디젤 발전설비 공사를 수주하였다.

이번 수주 금액은 우리나라의 대 쿠바 연간 총 수출액 1억5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이며, 현대중공업은 올해 하반기에만 이 수치의 3배가 넘는 4억6천만 달러를 수주해 향후 우리나라와 쿠바의 무역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중형엔진인 현대 힘센엔진을 탑재한 1천700kW급 컨테이너형 디젤 발전설비와 2천500kW급 육상용 발전기 등 총 100기의 디젤 발전설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1차분 244기와 함께 2007년 쿠바 전 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에 포함된 컨테이너형 발전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 장소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발전시설이 취약하고 수력발전이 불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상시 발전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에서 공급하는 발전설비는 쿠바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게 되어 사실상 쿠바 전력 생산의 주력기종이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중남미 지역에서 멕시코의 42MW급 발전설비에 이어 엘살바도르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각각 14MW급과 7MW급 컨테이너형 디젤발전설비를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6개국에서 총 185MW를 수주하였다.

* 전동지게차 홍콩 디자인전 수상 *

현대중공업이 자체 연구소인 테크노디자인연구소에서 디자인 한 "리치타입 7시리즈 전동지게차"가 비즈니스위크지가 후원하고 홍콩디자인센터와 홍콩무역개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Design for Asia Award 2005"에서 최우수 디자인 제품에 선정되었다.

이번에 수상한 전동지게차 신 모델 "HBR-7"시리즈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4월 시장에 선보인 제품으로 성능과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HBR-7」 시리즈 전동지게차는 1.471.571.872.072.5톤급 등 모두 5종으로, 기존 장비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고 운전이 편리 하면서, 에너지소모가 적고 디자인이 세련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1.4톤급의 경우 등판능력이 22.8%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기존장비에 비해 20% 이상 향상되었으며,

Copyright (C) 2006 NuriMedia Co., Ltd.

경사면에서도 밀림이 없고 미세조정 능력이 탁월해 정교함을 요하는 실내 작업에도 적당하다.

또한 운전석에 대형 계기 모니터 등 첨단 편의 장치를 설치해 편리성을 승용차 수준으로 향상 시켰고, 실시간 자기진단 기능과 가동시간이 25% 길어진 배터리를 장착해 관리가 쉽고 유지비도 훨씬 적게 든다.

이 장비는 일반 유압식 장비와 달리 전기조향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효율이 높으며, 물과 먼지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수·방진 기능이 강화된 부품을 사용해 구매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 장비를 개발하면서 미국과 유럽 수출을 위해 국제 안전 인증인 「CE」와 「UL」마크를 이미 획득해 놓았다.

* "유니버설 퀸" 호 명명·취항식 *

현대중공업은 선박펀드를 조성해 건조한 첫 선박 명명·취항식을 울산 본사에서 개최하였다.

현대상선에서 발주한 이 선박은 31만톤급 초대형 유조선으로, "유니버설 퀸"호로 명명되었다.

"유니버설 퀸"호는 길이 333미터, 폭 60미터, 높이 29.6미터로 축구장 3배 크기이며, 세워 놓으면 높이가 63빌딩(지상 249미터) 보다 84미터나 더 높으며, 성인(몸무게 60kg 기준) 500만명이 동시에 승선 할 수 있는 항공모함급으로, 1회 취항에 국내 일일 원유 소비량과 맞먹는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초대형 최첨단 선박이다.

이 선박은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로 원유를 수송하는 항로에 투입해 연간 7~8회 운항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

* 발전기 교체공사 국내기술로 일괄 수행에 성공 *

두산중공업이 노후 발전소의 발전기 교체공사를 원공급사가 아니면서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 성능시험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일괄 수행하는데 성공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980년 프랑스 알스톰에서 공급했던 울산화력 5호기 발전기를 교체하고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출력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발전기는 400MW급으로 두산중공업이 작년 한국동서발전(주)으로부터 수주했다.

발전기 교체공사는 기존에 가동 중이던 터빈은 물론 제어 계통, 주변 보조설비들과 연결되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특히 짧은 납기에 공사를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규 공사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까다롭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발전기 교체공사에 성공함으로써 터빈발전기 개보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으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국내외 발전소 개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두산중공업 터빈발전기BG장은 "과거 외국 발전설비업체들이 공급한 발전소 기자재를 두산 설계로 자체제작해 교체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전세계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전소 교체공사를 서비스 특화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형 가스터빈 사업 진출 *

두산중공업이 국내외적으로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소형 가스터빈 사업에 진출한다.

두산중공업이 개발하고 있는 소형 가스터빈은 5Mw급 열병합 발전용으로 해외 선진업체 제품에 비해 가격과 성능면에서 월등한 독자모델로 2008년까지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완료한 뒤 성능시험을 거쳐 2010년 상용화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발전소 소형화 추세에 따라 소형 가스터빈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2017년까지 총2.7Gw의 소형 열병합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진출시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장은 "소형 가스터빈 개발을 위해 올초 대덕 테크노밸리에 미래사업기술개발센터를 여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왔으며, 이 기술이 확보되면 2020년까지 국내 부품소재 업체의 연료비 절감, 수입대체효과 등 총 2조3천억원의 파급효과는 물론, 대형 가스터빈 기술개발의 기반 확보 및 교체사업의 국산화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한편, 소형 가스터빈 사업은 그동안 높은 산업연관 효과와 군사적 가치로 인해 미국, 독일 등 일부 보유국들이 기술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막대한 투자비용과 리스크로 인해 국산화가 어려웠다.

현대자동차

* 쏘나타, 신형그랜저 올해 캐나다 최고의 차 선정 *

현대자동차의 쏘나타와 그랜저가 캐나다 자동차 기자협회인 AJAC(Automotive Journalists Association

Copyright (C) 2006 NuriMedia Co., Ltd.

of Canada)에서 평가한 "올해 최고의 차"선정에서 각각 최고의 차로 선정이 되었다.

쏘나타는 폭스바겐의 제타, 파사트, 포드의 퓨전 등과 경쟁하여 최고의 평가를 받았으며, 신형그랜저는 강력한 경쟁차량인 도요타의 아발론을 비롯하여 BMW-3시리즈, 아우디 A3, 사브의 9-3 등을 제치고 최고 평가를 받은 것이다.

현대차의 쏘나타와 신형그랜저가 수상한 "올해 최고의 차량"상은 캐나다의 자동차 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소비자들의 신차구매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현대차는 향후 캐나다 시장의 판매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정에 대해 현대차 캐나다법인 스티브 켈러 사장은 "최근 현대차가 해외시장에서 급성장 하고 있는 이유는 현대차의 철저한 품질우선 경영이 현대차 브랜드 가치향상으로 이어짐으로써 현지 고객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완벽한 품질의 신모델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고객들의 신뢰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캐나다내 현대차 인기를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대차 캐나다 법인은 지난 11월까지 총 61,000여대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인 65,000대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러한 현지 인기를 바탕으로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 하고 현지실정에 적합한 마케팅, 광고 및 딜러시설 개선을 통하여 현대차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캐나다내 현대차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투싼 연료전지차, 미국서 시범운행 본격 가동 *

현대-기아자동차는 유티씨 퓨얼셀사와 공동 개발한 투싼 연료전지차를 미 캘리포니아주 버스 운행사인 AC Transit사에 전달하는 인도식을 가졌다.

이번에 인도되는 투싼 연료전지차는 미 에너지성의 연료전지차 시범운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대-기아차에서 계획하고 있는 운행 거점 중 하나인 AC Transit사에서 운행 할 예정으로 5년간 총 10대가 인도되어 운행될 예정이다.

투싼 연료전지차는 국내에서 개발한 연료전지 차량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버스 운영사의 운행지역인 샌 파블로에서 리치몬드, 버클리, 오클랜드, 헤이워드, 프리몬트까지의 버스운행 노선을 중심으로 온난 저습 환경과 다양한 조건의 도로를 달리게 된다.

또한 각 버스 운행지역을 이동하며 버스노선 및 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시범 운행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료전지차의 주행성, 연비, 내구성을 시험하게 된다.

투싼 연료전지차는 투싼 내연기관 양산모델 출시 후 8개월만인 2004년 12월에 개발된 차량으로 ▲영하 20℃에서도 시동 가능한 신기술 개발 ▲주행거리 및 출력 등 성능 개선 ▲연료전지 신기술 적용 ▲차량 안전성 향상을 통해 양산차와 동일한 성능과 편의성을 갖춘 고효율의 친환경 차량이다.

연료전지차는 상용화를 위해서 차량의 시동 한계온도를 영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데, 투싼 연료전지차는 미 유티씨 퓨얼셀사에서 실시한 영하 20℃ 조건에서 3일간 방치 후 실시한 시험주행에 성공해 상용화의 필수기술을 갖췄다는 평가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인도식을 시작으로 실 도로 및 사용자 운행을 통한 연료전지 차량 개발 자료 확보 및 차량과 수소 충전소 관련 안전/표준/법규 대응 기술을 한 단계 끌어 올려 고객의 요구를 만족하는 무공해 연료전지차 상용화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끝.

* 친환경 "자동차 리사이클링 센터" 준공 *

현대-기아자동차는 유럽/국내 환경관련 법규를 만족하는 국내 최초 친환경 폐차 처리장인 "자동차 리사이클링 센터"를 준공했다.

『자동차 리사이클링 센터』는 총 8개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공정이 연속 흐름식으로 구성되어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폐차가 운반틀에 실리면 자동으로 차종 및 제원 확인이 이뤄지며, 에어백, 시트프리텐셔너 등 폭발 위험 부품이 제거된 후, 후드, 배터리, 타이어를 제거하고 냉매, 와셔액 등 13종의 액상류를 동시에 회수 한다.

범퍼와 리어 콤비램프 등의 외장류와 시트, 도어 스커프 등 내장류의 해체 작업 이후에 엔진 및 변속기를 해체하며,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은 압축처리 된다.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리사이클링 센터를 통해 기존 폐차 처리 과정에서 불완전하게 회수되던 각종 액상류, 가스를 85% 이상 회수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각종 내·외장품을 소재에 따라 분류하여 재활용 가능율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해 폐차 투입 및 재활용·폐기물 처리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삼성중공업

* 국내 최초로 쇄빙유조선 시장 진출 *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최대 국영해운사인 Sovcomflot

Copyright (C) 2006 NuriMedia Co., Ltd.

사로부터 7만톤급 "극지 운항용 쇄빙유조선" 3척을 4억 3천만불에 수주함으로써 세계최대 원유 및 가스매장량을 자랑하는 러시아권역에서의 시장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쇄빙유조선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일반 쇄빙선과 같이 결빙해역에서 얼음을 깨며 전진하다가 얼음산맥에 막혀 고립 될 경우 추진기를 180도 돌려 후진으로 주변의 결빙된 얼음을 깨면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세계 최초로 전후진 양방향 운항이 가능한 쇄빙유조선으로서 동일 규모의 일반 유조선과 비교시 선가가 3배 이상 높은 고부가가치 특수선이다.

동유조선은 극지방에서의 원유 운송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신개념 선박으로서, 인도이후 러시아 북부 북극해의 바랜디 유전과 무르만스크항구 사이 바렌츠해를 오가는 항로에 투입될 예정이다.

* 거제도에 특급 호텔 개관 *

삼성중공업은 선주 및 선급을 대상으로 한차원 높은 고객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3백억원을 들여 거제조선소 인근에 건립한 경남지역 최초의 특1급 호텔인 "삼성중공업 거제호텔"을 개관했다.

이번에 개관하게 된 삼성중공업 거제호텔은 해외 선주들의 조선소 방문, 선박명명식 전후에 열리는 선주초청 연회, 그리고 기자재업체 엔지니어들의 업무 출장 등 조선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고객들의 숙소 및 지역주민들의 연회장으로도 개방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거제호텔은 지하1층에서 지상6층까지 7층 높이이고, 객실구조는 ▲8평형 스탠다드룸 ▲11평형 디럭스룸 ▲44평형 프레지덴셜룸 등 다양한 평형 8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영장, 비즈니스센타,대소연회장은 물론 바다를 조망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휘트니스 센터 등 최고급 취향의 해외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VIP호텔로서의 면모를 전부 갖추었다.

따라서 이번 거제호텔 개관으로 삼성중공업은 ▲행사소요 시간 및 비용 절감▲선주들의 편의 극대화 ▲급증하는 외부방문 고객들의 needs에 적기대응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대표자는 "선주를 비롯해 감독관, 엔지니어, 선박인수요원 등 다양한 고객들에게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선박수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명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 지식경영시스템 "디노"가동 개시 *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지식경영시스템인 "디노(D-Know)"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대우조선해양의 지식경영시스템 "디노"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내의 모든 지식을 열람하고, 새로운 지식을 자유롭게 등록 할 수 있으며, 시스템 내부에 EDMS (Elect 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s;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기능을 탑재, 기존 문서들의 보관과 관리기능까지 함께 하는 강력한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특히 회사 내 표준관리시스템과 전사 제안관리시스템, 학습공동체 운영시스템 등을 함께 갖추고 있어 회사 내 지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 시스템을 통해 수행 할 수 있어 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지식경영시스템의 가동을 위해 지난 2004년 말 최고지식경영자를 선임하고 변화추진실을 신설했으며, 2005년 초부터 사내 수백만여개의 문서와 자료를 정제, 등록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시스템 개발을 위해 200여명의 지식경영 요원과 Knowledge Driver 들을 투입, 1년여에 걸친 연구와 검토, 개발기간을 가진 끝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전사통합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PI(Process Innovation)시스템 가동에 이어 지식경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선진 경영시스템 구성을 완성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 조선해양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두 시스템 구축을 완비, 두시스템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어떠한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돼 이 회사가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추진중인 글로벌 네트워크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 자동차운반선도 세계 최강자 *

대우조선해양은 스웨덴의 발레니우스사로부터 8,000대의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자동차운반선 4척을 약 3억4천만달러에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8,000대급 자동차운반선은 '초대형 자동차운반선(LCTC, Large Car & Truck Carrier)"으로 불릴 정도로 지금까지 건조된 자동차운반선 중 가장 큰 규모다. 지금까지 건조된 자동차운반선은 6,700대를 싣는것이 가장 컸다. 중형차 기준으로 8,000대의 자동차를 한 줄로 세우면 총 길이가 38km이다.

Copyright (C) 2006 NuriMedia Co., Ltd.

최근 자동차 운반선 시장은 자동차 산업 호황에 따라 운임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생산하는 지역도 중국, 남미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자동차 운반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해운회사들도 선박 발주를 늘이고 있으며, 단일 선박의 규모도 더욱 커지고 신조선가도 상승하고 있다.

이번에 계약한 선박은 길이 227.8m, 폭 32.3m, 깊이 34.7m 규모로 8,000대의 자동차를 싣고 19.9노트(36.8 Km/h)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으며, 2009년 8월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박차 *

포스코건설이 폐열이용 발전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폐열을 이용한 3.2MW규모의 열매체 이용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최종 성능시험을 완료했다. 이로써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의 폐열이용 발전설비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섭씨 290도의 대기로 방출되는 뜨거운 폐열을 열원으로 흡수해 열매체 오일과 발화점이 낮은 이소펜탄 가스만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석탄, LNG, 중유 등을 버려지는 폐열을 열원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설비구성과 운전이 단순화 되었다는 큰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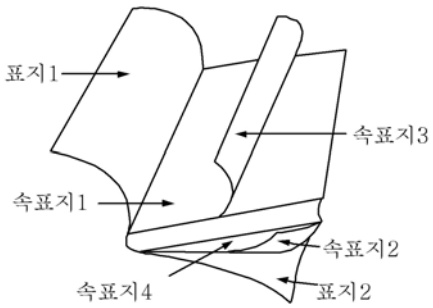
폐열이용 발전설비를 설치한 아세아시멘트는 연간 13억~15억원의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유가상승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은 물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친환경 경영의 경쟁력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회사는 폐열이용 발전설비 기술을 지난 8월 미국 L.A.에서 개최된 제9차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학술회의에 발표해 미래의 에너지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광고/회원사 소식 게재 안내 (042)828-6511~2

대한용접학회지 광고 게재료 안내

게재면수	필름규격 (A4)	광 고 료		
		1회 게재	색 상	흑 백
표 지 1	21×30cm	500,000원	칼 라	〃
표 지 2	〃	450,000원	〃	〃
속표지 1	〃	450,000원	〃	〃
속표지 2	〃	350,000원	〃	〃
속표지 3이후	〃	300,000원	〃	150,000원



* 기타사항 *

① 6회(1년분) 게재시 10%할인
(표지1,2, 속표지1제외)
② 광고필름 제작시 제작비 별도
③ 기사식 단색광고는 15만원
광고문의 안내(042-828-6511)

Copyright (C) 2006 NuriMedia Co., Ltd.

대한용접학회 입회원서

회원 번호

성 명	한 글			영 문		
	한 자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주 소	[-]				
	직 장 명		부 서		직 위	
	전 화		F A X		e-mail	
자 택	주 소	[-]				
	전 화		F A X		H.P	
연 락 처	하나만o표	1. 직 장( ) 2. 자 택( ) 3. 휴대폰( ) **[우편물]** 1. 직 장( ) 2. 자 택( )				
회원자격	하나만o표	1. 종신회원( ) 2. 정회원( ) 3. 학생회원( )				
최종학력	하나만o표	**[졸업연도 :]** 1. 박사( ) 2. 석사( ) 3. 대학교( ) 4. 전문대학( ) 5. 기타( )				
학위전공	하나만o표	1. 용접( ) 2. 금속/재료( ) 3. 기계( ) 4. 조선/항공( ) 5. 전기/전자( ) 6. 토목/건축( ) 7. 일반과학( ) 8. 기타( )				
논 문 명	최종학위					
용접관련 자 격 증	모두 o표	국가 1. 기술사( ) 2. 기사( ) 3. 산업기사( ) 4. 기능장( ) 5. 기능사( ) 6. 기타( )				
		KWS 7. 용접전문기술자( ) 8. 용접기술자 1급( ) 9. 용접기술자 2급( ) 10. 용접교사( ) 11. 용접지도자( ) 12. 용접검사자( ) 13. 용접사( ) 14. 기타( )				
직 업	하나만o표	1. 엔지니어/회사원( ) 2. 개인사업( ) 3. 교수/교사( ) 4. 연구원( ) 5. 학생( ) 6. 기타( )				
관련분야	순서대로 3개 선택 1,2,3번호 기 재	1. 금속재료( ) 2. 재료가공( ) 3. 조선/중공업( ) 4. 자동차( ) 5. 우주항공( ) 6. 용접기기( ) 7. 압력용기( ) 8. 박판기공( ) 9. 산업기기( ) 10. 용접보수( ) 11. 용접재료( ) 12. 건축/건설( ) 13. 전기/전자( ) 14. 시험/검사( ) 15. 용접역학/설계( ) 16. 교육( ) 17.공공기관( ) 18. 기타( )				
관련재료		1. 철강재료( ) 2. 비철재료( ) 3. 스테인리스/내열합금( ) 4. 세라믹스( ) 5. 고분자재료( ) 6. 복합재료( ) 7. 기타( )				
관련공정		1.아크용접( ) 2. 저항용접( ) 3. 고밀도용접( ) 4. 브레이징/솔더링( ) 5. 고상접합( ) 6. 표면개질( ) 7. 절단( ) 8. 용접제어/자동화( ) 9. 비파괴시험( ) 10.기타[ ]				
학 회 지 논문심사	하나만o표	1. 원함( ) (분야 :) 2. 원하지 않음( ) ↘[가능한 상세히 제시, (예; 철강재료의 고온균열, 아크센서 등)]				
희망지부	하나만o표	1. 동북지부[울산·포항·경북]( ) 2. 동남지부[부산·거제·마산·경남]( ) 3. 중부지부[서울·경기·강원]( ) 4. 서남지부[호남·충청·제주]( ) 5.기타( )				
희망연구 위 원 회	하나만o표	1. 정밀접합연구위원회( ) 2. 용접강도연구위원회( ) 3. 용접공정연구위원회( ) 4. 고에너지빔가공연구위원회( ) 5. 기타[ ] 6. 원하지 않음( )				
추 천 인	정 회 원	인	소 속		직 위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자 이에 입회원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 회 인 인

사단법인 대 한 용 접 학 회 장 귀 하

Copyright (C) 2006 NuriMedia Co., Ltd.